

## ‘행복’과 ‘복’의 이중주

— 시편 128편 연구 —

김창주\*

### 1. 서론적 안내

시편 120-134편은 일련의 성전시로서 ‘쉬르 함마알로트’(שִׁיר הַמַּעֲלוֹת)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개역개정), ‘순례자의 노래’(공동번역), ‘순례의 노래’(성경) 등으로 소개되었다. 이 중에서 시편 128편이 눈길을 끄는 것은 구약성서의 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본문이기 때문이다. 즉 시인은 복에 관련된 네 가지 다른 단어, 아슈레이, 바라크, 토브, 그리고 샬롬 등을 다양한 형태(명사 연계형, 동사, 형용사, 명사 절대형)로 언급하며 노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명사 연계형 아슈레이(1, 2절), 형용사 토브(2, 5절), 동사 바라크(4, 5절) 각각 두 차례, 명사 절대형 샬롬(6절)이 한 차례 나온다. 이렇듯 복에 관련된 여러 단어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흔히 읽히는 『개역개정』이 아슈레이와 바라크 두 단어를 똑같이 복으로, 토브를 각각 형통과 번영으로, 그리고 샬롬을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히브리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복에 관련한 한글 어휘가 히브리어에 비해 다양하지 않아서 대응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시편 128편의 구조와 신학을 중심으로 주요 네 단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70인역』을 비롯한 주요 번역 성서들도 참고해야 한다.

한편 시편 128편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와 주석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본문에 함축된 지혜적 요인, 그리고 제의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그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편 128편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qimchangjoo@naver.com](mailto:qimchangjoo@naver.com).

의 독특한 수사법 중의 하나는 두 차례 반복되는 3인칭으로 시작하여 2인칭으로 변환되는 장치인데 여기에 담긴 역동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목표이다. 겉으로 볼 때 시인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인칭의 변화를 필두로 내용적으로는 지혜문학에서 예배의식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정에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강약법(dynamics)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이상의 치밀하게 전개되는 시적 역동 또한 이 논문의 과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수사를 이끌어갈 핵심 개념은 ‘복’을 가리키는 아슈레이와 바라크이다. 이 둘은 동의어로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그 어원적 차이는 명백하다. 그리하여 시인은 토브를 아슈레이와 바라크에 각각 연계시켜서 둘의 공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살림으로 이어준다. 한 개인의 공간에 머물던 행복과 복이 결국 시인의 공동체와 시온, 예루살렘,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 2. 번역본의 비교와 본문 사역

### 2.1. 번역 성경의 비교

시편 128편을 충실히 옮기려면 기존의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 표는 몇몇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히브리어 본문(MT), 주요 한글 번역본들, 『70인역』 성서(LXX), 영어의 NRSV, 유대교의 TaNaKh를 대조한 것이다.

MT	개역 개정	공동	새번역	성경	LXX	NRSV	TaNaKh
אֲשֵׁרֵי	복	복	복	행복	μακάριοι	happy	happy
טוֹב	형통	행복	은혜	복	καλῶς	go well	prosper
בָּרַךְ	복	복/축복	복	복	εὐλογηθήσεται	blessed	blessed
טוֹב	번영	번영	은총	번영	ἀγαθὰ	prosperity	prosperity
שָׁלוֹם	평강	평화	평화	평화	εἰρήνη	peace	be well

우선 한글 번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슈레이(אֲשֵׁרֵי)와 바라크(בָּרַךְ)를 구분하기는 몹시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두 단어를 모두 ‘복’으로 옮긴데

다가 『공동번역』은 4절과 5절에 두 차례 나오는 바라크를 ‘복’과 ‘축복’으로 각각 달리 옮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성서 중 가장 최근 번역인 가톨릭 『성경』이 둘을 행복과 복으로 구분한 것은 히브리어의 차이를 고려한 좋은 시도인데 2절의 토브(טוב)를 복으로 번역해서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한글번역의 문제점은 아슈레이와 바라크의 차이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비해 『70인역』과 외국어 번역은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일관성이 있게 옮기고 있기 때문에 시편 128편의 흐름을 따르기 쉽다. ‘복’에 관련된 한글 표현이 서양 언어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 적절한 대응어가 필요한 대목이다.

두 차례 나온 토브의 번역은 한글성경마다 제각각이다. 『개역개정』은 ‘행통’과 ‘번영’으로, 『공동번역』은 ‘행복’과 ‘축복’으로, 『성경』은 ‘복’과 ‘번영’으로 마치 다른 단어인양 번역하였다. 히브리어 토브는 문맥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가 다른 개념과 뉘앙스로 표현된다면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교적 『새번역』이 토브를 ‘은혜’와 ‘은총’으로 동일 계열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낱말로 옮겨진 이상 한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어감을 주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NRSV도 ‘go well’(2절), ‘prosperity’(5절)로 해석하여 비슷한 오류를 보인다. TaNaKh는 ‘prosper’와 ‘prosperity’, 동사와 명사로 차이가 있으나 같은 단어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서 원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70인역』은 토브를 καλῶς(아름답다)와 ἀγαθὰ(좋다)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70인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근거한 번역으로 간주된다. 히브리어 토브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쓰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데 이점에서 그리스어 번역은 미적 기준과 실용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에서 둘을 결합한 ‘κἀγαθός’는 ‘탁월한 사람들’이나 ‘균형 잡힌 삶의 행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쓴다.<sup>1)</sup>

마지막으로 샬롬의 번역에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 한 차례만 언급되었을 뿐이고 『개역개정』이 ‘평강’으로 번역할 뿐 대부분 ‘평화’로 옮겼다. 앞으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시편 128편은 아슈레이, 바라크가 두 번씩 나오고 역시 두 차례 언급되는 토브가 둘을 묶어주며 마지막으로 샬롬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갈무리하는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1) R. Barney, “Notes on Plato on the Kalon and the Good”, *Classical Philology* 105:4 (2010), 363-377.

## 2.2. 시편 128편 사역

성전에 오르며

<sup>1</sup>행복하여라(אַשְׁרֵי), 야웨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여!

<sup>2</sup>네 손이 일한대로 먹으리니 행복과(אַשְׁרֵי) 번영(טוֹב)이 네게 있으리라.

<sup>3</sup>네 아내는 송이 포도처럼 집안에 있고 네 자녀들은 올리브 가지처럼 둘러있구나.

<sup>4</sup>보라, 이 같은 복(בְּרָךְ)이 야웨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sup>5</sup>야웨가 시온에서 네게 복(בְּרָךְ) 주시기를 비노니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טוֹב)을 보며,

<sup>6</sup>네 자식의 자손들을 보게 되리라 평강(שְׁלוֹמִים)이 이스라엘에 있기를!!

위의 사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지만 그렇다고 원문을 효과적으로 살린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번역』의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는 엄격한 의미에서 번역이라기보다 해설(paraphrase)에 가깝다. 『공동번역』은 ‘오르다’의 뜻을 ‘순례’에 담아 ‘순례자의 노래’로 옮겼다. 사역(私譯)이 표제를 “성전에 오르며”로 옮긴 것은 히브리어 제목에서 ‘쉬르’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영어 번역의 ‘성전시’(a Song of Ascents)처럼 간명한 표현은 아니지만 ‘성전에 오르며’라고 붙여도 시편의 뉘음에 속한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명사 문장의 경우 문자적으로 옮기면 불완전한 한글 문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절한 동사를 첨가해서 문장을 재구성해야 한다. 유진 나이다(Eugene Nida)가 이미 진술한 대로 번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첨가’와 ‘생략’으로 인한 ‘변화’를 피할 수 없으나<sup>2)</sup> 가급적 최소화하여 어색한 채로 두었다. 예를 들어 1절은 문자적으로 “야웨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이의 행복들”이지만 히브리 어순을 살리면서 한글 문장이 되도록 위와 같이 손질한 것이다. 더구나 아슈레이(אַשְׁרֵי)는 문장 맨 앞에서 감탄사와 같은 역할과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행복하여라”로 옮겼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문장의 순서를 가능한 대로 따르면서 원문의 형식을 고집한 것은 투박하지만 본래적인 뉘앙스를 살리고 싶은 의도에서다.

시편 128편의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슈레이와 바라크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은 동의어로서 사전적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작 한글에서 두 단어의 적절한 대응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행복”과 “복”으로 번역하였다. 이 둘의 용례와 차이점은 4장에서

2)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82), 5.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짧은 시 한편에서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에 번역의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아슈레이의 문자적인 번역 “~ 행복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지만 히브리어에서 보통명사 복수는 ‘위엄의 복수’(majestic plural)가 되어 최고의 복, 곧 지복(beatitude)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쓰이기도 한다.<sup>3)</sup>

토브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토브는 보통명사로 2절과 5절에 두 번 나왔는데 『공동번역』은 아슈레이와 바라크와 같은 의미의 ‘행복’과 ‘축복’으로 번역하여 일반적인 복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새번역』은 “은혜”, “은총”으로 풀이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이해한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는 수고에 따른 ‘토브’와 시온에서 베풀 야웨의 복이 곧 예루살렘의 ‘토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역은 “번영”으로 옮긴 것이다. NRSV와 TaNaKh에서는 한 번은 동사로(go well, prosper), 또 한 번은 명사(prosperity)로 해석한 것은 명사구에 따른 문맥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살롬은 일반적인 ‘평화’가 좋은지, 전통적인 ‘평강’이 나올지, 중립적인 ‘평안’으로 가야할지 잠시 망설여지는 대목이다. 평화는 무난한 번역이지만 살롬의 의미를 지나치게 보편화한다는 뉘앙스가 나고, 평안은 시편 128편이 노래하는 복을 무성화시키는 약점이 드러난다. 전통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평강은 평화와 건강을 아우르는 표현이면서 종교적인 측면이 들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살롬의 대응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시편 128편의 구조와 장르

#### 3.1. 구조 분석

연구자들은 대부분 시편 128편을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나는 1-4절과 5-6절 두 단락으로 나누는 경우(H.J. Kraus, F. Hossfel, E. Zenger)와, 다른 하나는 1-3절과 4-6절 둘로 구분하는 경우(H. Schmidt, L. Allen)다. 이와 전혀 달리 거스텐버거(E. Gerstenberger)는 더 세분하여 표제(1a), 지복(beatitude: 1-2), 축복(blessing: 3-4), 축복(5-6a), 소망(6b)으로 분석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시편 128편은 1-3절과 4-6절에서 3인칭(1,4절)에서 2인

3) N. M. Sarna, *Songs of the Heart: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New York: Schocken Books, 1993), 29;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550-554;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2006) 참조하라.

칭(2-3, 5-6절)으로 변환이 두 차례 반복된다는 점과, 아슈레이가 앞 단락을 이끌고 바라크는 뒤 단락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제를 제외하고 두 문단으로 나눈다.

표제: 성전에 오르며(1a)

행복이 이끄는 삶: 1-3절

3인칭: 야웨 경외가 이끄는 행복(1절)

2인칭: 재물과 사회적 성공(2절)

2인칭: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번성(3절)

복이 가득한 삶: 4-6절

3인칭: 야웨 경외로 인한 복(4절)

2인칭: 시온에서 언을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5절)

2인칭: 후손들의 번성과 이스라엘의 평강(6절)

호스펠(Frank-Lothar Hossfel)과 쟁어(Erich Zenger)는 둘의 공저 *Psalmen 101-150*에서 시편 128편의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보여준다.<sup>5)</sup> 두 학자는 야웨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지복 1-4절과, 복의 기원 (Segenwünsche)인 5-6절 두 단원으로 나누면서 인칭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렇지만 정작 인칭의 변화가 문단 나누기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테리언(Samuel Terrien)도 이 시편의 인칭 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단락 구성은 야웨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1-2절), 자녀의 행복(3절), 예루살렘의 행복(4-6절) 등으로 나누고 있다.<sup>6)</sup> 한편 호스펠과 쟁어는 전통적인 ‘인과율’(Tun-Ergehen-Zusammenhang) 신학에 근거하여 4절을 2-3절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 견해는 일견 타당하지만 시편 128편의 인칭 변화를 통한 역동성을 충분히 살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7)</sup> 호스펠과 쟁어는 1-4절을 한 단원으로 묶는 근거로 4절의 접속사구 “כִּי-וְ”에 두고 있으나 BHS 본문 비평장치에 따르면 『70인역』과 『시리아 역본』,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Eusebius Hieronymus: 348-420)도 “כִּי-וְ”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 굳이 4절을 포

4)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15 (Grand Rapids: Eerdmans, 2001), 348-349.

5) F-L Hossfel and E. Zenger, *Psalmen 101-150* (Freiburg; Basel: Herder, 2008), 543ff.

6)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831-834.

7) F-L Hossfel and E. Zenger, *Psalmen 101-150*, 543.

함하여 한 단원으로 처리할 이유는 적어진다.

시편 128편의 구조는 위에서 제시한 대로 각 단원이 3인칭에서 시작되어 (1,4절) 2인칭으로 확산,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2-3, 5-6절) 1-3절과 4-6절로 나누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주제로 보아서도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시편 128편의 뚜렷한 인칭 변화는 다음 5장에서 다루게 될 신학적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특징적인 수사법이다. 주제적으로 보면 시편 128편은 행복과 복이라는 두 바퀴가 나란히 이끄는 노래이며 두 단원은 각각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시편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편은 6절로 구성된 짧은 노래지만 독특한 전개 방식과 신학적 역동성이 기민하다.

### 3.2. 장르

시편 128편은 15편으로 묶인 순례시(시 120-134)에 속하지만 궁켈(Herman Gunkel)은 지혜시로 분류한 바 있다. 그 근거는 행복, 경외, 길, 평강 등이 전통적인 지혜에 관련된 교훈적인 어투이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거스텐버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제의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시편 128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진 127편의 특성에 비춰볼 때 역시 지혜와 제의가 두 시편에 공존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sup>9)</sup> 거스텐버거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시편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 참배를 위하여 오가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혹은 떠날 때 성전에서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불렀던 제의적 지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10)</sup>

크라우스는 시편 128편의 장르를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sup>11)</sup> 즉 1-4절은 일반적인 지혜에 속하지만 5-6절은 민수기 6장의 아론의 기도(Birkat Kohanim)와 유사한 점을 들어 제사장의 축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전 축제가 최고조에 달할 무렵 제사장은 회중을 향하여 야웨 경외를 통

8)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 WBC 21,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1), 308; Leslie C. Allen,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21 (Waco, TX: Word Books, 1995).

9) 쌍둥이 시편에 관해서는 D. M. Howard Jr,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of-the-Field Survey”, *Word and World* 9 (1989), 274-285; D. Human, “From Exile to Zion-Ethical Perspectives from the Twin Psalms 127 and 128”, *Old Testament Essays* 22:1 (2009), 63-87 참조.

10)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351.

11) H. J. Kraus, *Psalms 60-150*, H.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89), 458.

한 복이 시온에서 나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축도에 힘입어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간다. 비슷하게 슈미트(H. Schmidt)는 시편 128편이 지혜문학의 축사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제사장의 축복과 기원으로 마감하는 ‘축사와 축도’가 결합된 시편으로 간주한다.

요약하면 시편 128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르내리며 불렀던 노래로서 지혜적 요소와 제의적 특징이 맞물려서 디아스포라의 삶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어울려지도록 기획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페르시아 점령 때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4. 시편 128편의 다양한 ‘복’ 살펴보기

우리가 논의하는 시편 128편은 유난히 복에 관련된 낱말, 아슈레이, 바라크, 토브, 샬롬 등이 고르게 언급되었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의 지적처럼 복의 연구는 지금까지 구원사 중심의 서구 신학에서 거의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구원과 복을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베스터만의 저작,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는 신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만일 성서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서사라면 두 주제만 따분히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성서가 하나님과 인류의 교제를 언급할 때 그분의 구원과 더불어 축복(Sege)도 함께 들어 있다. 구원과 축복이 함께 있을 때만이 역사가 이뤄진다. ...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는 활동 기록에는 구원과 축복이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베스터만은 구원사 일변도의 서구 신학 전통에서 성서적 의미의 복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복의 영역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공헌을 평가할 수 있다. 즉 그의 연구는 구약성서에서 복이 역사와 함께 얽혀있으며, 복의 범주가 창조, 지혜, 평화 등으로 확장된 흐름을 밝혀낸 것이다.

성서의 복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베스터만의 논지를 따르는 선에서 한국적 상황을 적용시킨 논문들이 대부분이고 비판적 논의는 없는 편이

12) C. 베스터만, 『聖書와 祝福』, 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8; C. Westermann,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4-5.

다.<sup>13)</sup> 예를 들어 베스터만은 성서의 복에서 핵심적인 낱말 중의 하나인 ‘에세르’가<sup>14)</sup>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편과 지혜문학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고 오직 베라카 중심의 논의를 편다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피더슨(Johannes Pedersen)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의 저작을 소개하고 있지만 베스터만에게 시편 128편의 처음 단어인 ‘아슈레이’는 복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시편 128편은 아슈레이, 바라크, 토브, 그리고 샬롬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복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본문이 된다.

#### 4.1. 아슈레이/에세르/행복

아슈레이(אֲשֵׁרַי)의 원형은 에세르이다. 남성명사 복수 연계형으로 ‘콜 에레’(경외하는 사람들)와 연결시켜 번역해야 한다. 특히 문장 앞에 올 때와 중간에 위치할 때는 사뭇 다른 어감을 준다. 즉 아슈레이가 앞에 오면 감탄문 형식의 선언처럼 번역되고 중간에서는 평서문이 된다.<sup>15)</sup> 영어 번역(NRSV)을 참조하면 그 차이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Happy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you shall be happy (시 128:1-2 부분).

아슈레이와 연관하여 히브리어 복수명사의 용법은 아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복수명사는 보통 단수의 확장이나 구성 내용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 ‘하늘’(שָׁמַיִם)은 복수지만 단수 샬마이(שָׁמַיִ)의 확대된 형태이며 동시에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복수명사 엘로힘(אֱלֹהִים)의 경우 단수로 쓰이면 가장 뛰어난 신, ‘최고의 신’을 가리킨다. 문법 학자들은 명사의 일반적인 복수형이 대표적 단수로 쓰여 최상급의 의미를 확보하는 경우를 일컬어 ‘신성 복수’라고도 한다.<sup>16)</sup> 본문의 아슈레이는 행복의 확장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의미상으로 행복의 최고 형식, 곧 ‘지복’(beatitude)을 뜻하게 된다.<sup>17)</sup> 구약성서에서 아슈레이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후대 문서인 시편

13) 강사문, “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교회와 신학』 23 (1991), 7-37; 노희원, “구약의 복과 생명”, 『신학논단』 26 (1999), 7-38; 현요한, “복의 신학”, 『장신논단』 (2002. 12.), 307-331.

14) C. Westermann, *Blessing in the Bible*. 68. n 49를 보라. 그는 아슈레이를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고 다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관련하여 각주에서 한 차례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장일선, 『성서와 축복』 108쪽 각주 번호 49번을 참조하라.

15) 아슈레이가 감탄사, 소원문체, 그리고 강조의 복수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김창주, “하늘의 기쁨” - 시편과 산상수훈의 경우”, 『신학논단』 62 (2010. 10.), 86-90을 참조하라.

16)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550-554.

과 일부 지혜문학에 대부분 집중되었으나 예언서와 역사서에도 간혹 눈에 띈다.<sup>18)</sup> 아슈레이는 후에 그리스어 성서 『70인역』을 통하여 복음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산상설교에서 Μακάριοι로 시작되는 ‘행복 선언’(마 5:3-12)은 예수의 교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그 원형은 시편의 아슈레이에 두고 있다.

이제 명사 에세르(עֶסֶר)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의미와 용법을 분석할 차례다. 동사 ‘아샤르’는 ‘성큼성큼 전진하다’(Samson Raphael Hirsch),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다’(Terrien), ‘바로잡다, 고치다’(BDB) 등을 가리킨다.<sup>19)</sup> 아샤르의 사전적인 풀이는 이쪽이나 저쪽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렇듯 아샤르의 어원은 흥미롭게도 구약의 죄 개념과 정확히 반대가 된다. 구약성서의 죄(罪)는 가야할 목적지를 놓치고(חָטָא), 방황하고(עָוָה), 거역하고(פָּשַׁע), 그리고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잘못을 범하는 것(שָׁגָה) 등이다.<sup>20)</sup> 죄와 관련된 네 개의 낱말은 꼬리를 물 듯 서로 맞물려 있다. 먼저 죄는 화살이 과녁에 이르지 못하거나 빛나간 상태를 이르는데, 이렇듯 목표를 놓치면 방황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할 수 있으며,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신앙의 목표를 잃고 이리저리 배회하다 실수하고 범 죄하는 일련의 행위는 다음에 논의할 베라카(בְּרָכָה)의 뜻과 사뭇 다르게 에세르의 영적, 혹은 지혜적 차원을 덧입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일부 랍비들을 비롯한 학자들은 에세르/행복을 신앙적 의미의 복, 영적인 성취를 가리킨다고 이해한다(Malbim).

시편 128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또는 디아스포라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신앙의 중심이자 목표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하여 ‘야웨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노래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가는’, 즉 율법과 계명의 순종과 실천

17) Nahum M. Sarna, *Songs of the Heart*, 30; J. Brennan, “The Psalms and the Beatitudes”, *The Furrow* (1963), 561-572.

18) 구약에서 아슈레이는 45차례 언급되는데 시편에 26회(시 1:1; 2:12; 32:1-2; 33:12; 34:8; 40:5; 41:1; 65:4; 84:4-5, 12; 89:15; 94:12; 106:3; 112:1; 119:1-2; 127:5; 128:1, 2; 137:8-9; 144:15x2; 146:5), 잠언에 8회(잠 3:13; 8:32, 34; 14:21; 16:20; 20:7; 28:14; 29:18), 이사야 등에 11회(왕상 10:8x2; 대하 9:7x2; 욥 5:17; 사 30:18; 56:2; 단 12:1) 나온다. 시편 제1권의 복과 관련하여 강소라, “시편 1권의 ‘복 있는’ 구절에 나타난 행복”, 『성서학 학술세미나』 (2009), 1-10을 보라.

19)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832. 주용-무라오가는 에세르보다 아슈레이(אֲשֶׁר)에 무게를 둔다. 주용-무라오가, 『성서 히브리어 문법』, 289.

20) 폴 리코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80-82; P. Riceour, *The Symbolism of Evil* (New York: Beacon Press, 1967).

은 그 분 안에 거하며 만족해하는 기쁨이며 경건한 사람이 누리는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1)</sup> 이와 같은 행복은 특별히 시편에서 자주 언급된다.

복있는 사람은 ...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2:12)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12:1)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와 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시 119:1-2).

시편 128편을 제외하고 위에 인용한 시편을 비롯한 그 밖의 시편 아슈레이 구문은 신앙적 차원의 즐거움과 경건한 기쁨을 암시한다. 놀랍게도 시편 128편도 1절에서는 시편 아슈레이의 특징을 반영하지만 2절에서는 “네 손이 일한대로 먹는 것”이 곧 행복이며 번영이라고 노래한다. 이 점은 이제 논의하게 될 바라크와 긴밀하게 이어진 신학적 연결고리가 된다.

## 4.2. 바라크/베라카/복

아슈레이와 더불어 복을 설명하는 다른 낱말은 동사 바라크이다. 바라크는 동사, 명사는 베라카로 구약성서에 464차례 나온다. 이 단어는 다소 엉뚱하게도 ‘복’, ‘무릎’, ‘쌈’이라는 각기 다른 뜻이 있다. 구약신학사전(TDOT)에 따르면 바라크를 ‘무릎을 꿇다’(barak I)와 ‘복을 빌다’(barak II)로 독립된 단어로 풀이하고 있지만<sup>22)</sup> 몇몇 성서 구절(왕하 20:20; 전 2:6; 아 7:4)과 히스기야 터널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Siloam Inscription)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못’(הַבְּרִכָּה)의 상징적, 은유적 의미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sup>23)</sup>

*The Dictionary of Classic Hebrew*에 의하면 ‘바라크’ 동사에 세 가지 다른 뜻이 있다. 즉 ‘복을 빌다’, ‘강하다’, ‘무릎을 꿇다’.<sup>24)</sup> 명사 ‘무릎’은 동사 ‘무릎을 꿇다’와 관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동작은 사제가 복을 빌 때 ‘예배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작과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21) W. Janzen, “AŠRĒ in the Old Testament”, *Harvard Theological Review* 58 (1965), 222.

22) Josef Scharbert, “בָּרַךְ, brk”,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II, 279-308.

23) Ronny Reich and Eli Shukron, “The Date of the Siloam Tunnel Reconsidered”, *Tel Aviv* 38:2 (2011), 147-157.

24) David J. 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 Hebrew* I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67-273.

있다. 실제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용서(시 95:6), 기도(왕상 8:54), 또는 예배(왕상 8:55; 시 72:19; 사 45:23) 등과 관련된 장면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무릎’과 ‘복’이 동시적이라는 점은 동양 전통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양의 교훈에 의하면 꿇유지례(跪乳之禮), 곧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 예법’을 가리키는 효행과 관련지을 수 있다.<sup>25)</sup> 새끼 양이 어미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나 양의 공손한 태도 역시 중요하고 상호 연관적이라고 여긴 것이다.

한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하여 전체 조건을 제시하는데 무릎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새끼 양의 겸양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up>2</sup>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할 때 이 모든 복(כָּל-הַבְּרָכּוֹת)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sup>3</sup>성읍에서도 복(בְּרָכָה)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sup>4</sup>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sup>5</sup>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sup>6</sup>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2-6).

다시 말해서 “야웨의 말씀을 청종하면”(2절)을 바로 ‘꿇유지례’의 무릎 꿇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그렇듯 겸손한 태도가 안전한 거주의 복, 자녀의 복, 육축의 복, 소출의 복, 일상의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cf. 창 12:2; 27:12, 36). 다음에 인용하는 이사야의 용례가 무릎과 복의 관련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עַל-בְּרָכָיִם) 놀 것이라(사 66:12).

‘그 무릎에서’는 야웨가 베푸실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공간적 개념인 동시에 풍요와 안전을 가리키는 복의 내용이다.

성서에서 베라카가 ‘우물’로 쓰인 예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과 직접적인 접촉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역개정』의 경우 ‘샘’(시 84:6), ‘우물’(잠 5:15), ‘못’(왕하 20:20; 전 2:6; 아 7:4) 등으로 번역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복의 어원을 ‘무릎 꿇다’와 우물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25)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장공(莊公)에 나온다. 羔羊跪地吸乳, 乳必跪而受之 (고양레지흡유, 유필레이수지), 즉 ‘새끼 양은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다. 젖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우선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취하는 동작과 태도를 떠올려보라. 즉 우물에서 도구 없이 물을 마시려면 무릎을 굽혀 낮은 자세로 두 손을 모으거나 머리를 숙여 입으로 물을 접촉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사제가 축복할 때 예배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동작과 흡사하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케유지레이며 복을 받기 위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물은 갈증 해소를 위한 일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만약 사막의 와디(Wadi)처럼 간헐적인 공급에 그친다면 우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물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야 하는데 이 점은 다시 복의 지속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복을 베푸신 것이나, 가나안에 진입하여 받게 이스라엘의 복은 잠깐 흐르는 와디처럼 이내 증발할 물줄기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복’, ‘무릎’, 그리고 ‘샘’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맞물려 있는 개념인 것을 확인하였다.

#### 4.3. 토브/선(善)/복

토브는 동사, 형용사, 명사로 구약성서에 864차례 등장한다. 어원적으로 ‘바르게 행하다’(to act right)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의 폭은 광범위하다. 랍비 모세 벤 나흐만(Mosheh ben Nachman: 1194-1270)은 토브를 ‘현존’으로 풀이한다.<sup>26)</sup>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와 동시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그것은 존재를 가능케 한다. 앙드레 라콕(André LaCocque)에 따르면 토브는 “일을 완수하는 힘, 곧 창조주의 의도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 세계가 좋았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풀이다.<sup>27)</sup>

토브는 시편에도 빈번하게 언급되고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토브는 “선”(시 4:6; 14:1, 3; 34:14; 37:3, 27; 39:2; 52:3; 53:1, 3), “좋은 것”(시 34:10; 84:11; 85:12; 103:5; 104:28; 107:9), “선대”(시 119:65), “평안”(25:13), “선하심”(시 23:6), “아름다운”(시 21:3), “형통”(시 128:2), 그리고 “복”(34:12; 73:28; 119:122; 122:9) 등으로 옮겨졌다. 토브가 “선”으로 번역된 경우는 대부분 악과 관련하여 대조되는 개념이 강조된 것이고(창

26) C. B. Chavel, *Ramban (Nachmanides): Commentary on the Torah Genesis* (New York: Shilo Publishing House, 1971), 29-30.

27) André LaCocque,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33-52.

2:9),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개역개정』의 경우 시편에서 토브가 “복”으로 번역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몇 차례 나온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טו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 34:12)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טוב)이라(시 73:28)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19:122)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טוב)을 구하리로다 (시 122:9)

토브를 ‘복’으로 옮긴 경우를 포함하여 ‘선’, ‘좋은 것’, ‘아름다운’, ‘행통’ 등은 모두 에세르와 베레카와 같은 동류항에 속하는 개념들이다. 위의 토브를 검토해 보면 “생명과 장수”(34:12), “하나님을 가까이 함”(73:28), “하나님의 보증”(119:122), “하나님의 집”(122:9) 등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과 지속성을 함축한다. 앞의 2장 2)항에서 토브를 ‘번영’으로 옮긴 것은 복의 최대치, 곧 가장 확장된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지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토브에 내포된 지속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에 연속적으로 언급되어 있다(창 1:4, 10, 12, 18, 21, 25, 31). 마치 후렴구처럼 일곱 차례 반복되는 이 구절에서 토브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더 놀라운 일은 태초의 옛세 동안에 터 잡힌 우주의 질서와 운동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 좋게’(토브) 되풀이 된다는 사실이다. 토브에는 태초의 창조에서 주어진 규칙성이 현재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토브는 일상적인 반복과 주기적인 순환이 외부의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현존’이다. 생육과 번성의 복, 베라카 역시 일회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듯 꾸준한 반복이 요청되는 토브는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하는 에세르에도 똑같이 필요한 덕목이다.

위에서 확인한 토브에 내재한 반복과 순환은 생명을 통하여 연속적이며 영속적인 힘을 얻게 된다. 즉 신명기는 토브와 생명의 대립항을 사망과 화로 설명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חיים)과 복(טוב)과 사망(מוות)과 화(רע)를 네 앞에 두었도다.

...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 네게 복(בִּרְכָה)을 주실 것임이라(신 30:15-16)<sup>28)</sup>

생명이 연속적이라면 복/토브는 규칙적이다. 그런가 하면 사망은 불연속적이고 화는 불규칙적이다. 날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순환되는 일상의 연속은 곧 생명이고, 창조를 통하여 드러난 현존의 되풀이하는 토브가 된다. 여기에 비해 사망은 더는 이어지지 않는 단절이며 화는 참을 수 없는 차단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는 우주 질서의 규칙성과 어제의 오늘이 계속되는 삶의 순환은 토브에 근거한다. 신명기 기자가 토브를 ‘생존’과 ‘번성’에 관련짓고 그리하여 다시 복(בִּרְכָה)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토브를 세속적인 복과 종교적인 복, 윤리적인 선과 신앙적인 선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sup>29)</sup>

시편 128편은 놀랍게도 2절에서는 아슈레이와 토브를 동일한 범주에 넣으면서, 5절에서는 바라크와 토브(번영)를 평행시키고 있다. ‘네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2절), ‘네게 복 주시기를 ... 네가 번영을 보며’(5절). 이 때 토브는 행복(아슈레이)과 복(베라카)을 연결하는 공통분모가 된다. 때로 토브를 동의어 ‘복’이나 ‘축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의 ‘행통’이나 ‘은혜’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토브를 행복과 복의 동류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 4.4. 샬롬/평강/평화

샬롬은 구약성서에 259차례, 시편에 27차례 언급되는 중요 단어다. 한글 성서는 평화, 안심, 평강, 회복, 화친, 화평, 번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관용적인 용법으로 주고받는 인사에도 흔히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사의 대표적인 예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나 “평안하냐?”(창 29:6)고 묻는 장면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하기를 기원하며 “평안히 가라!”(삼상 20:42)고 작별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베스트터만이 지적한 대로 구약성서에서 샬롬은 순수하게 ‘완전한, 건강한,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렇기에 안부를 주고받는 관용

28) 『새번역』은 토브를 ‘번영’으로 옮겼다.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 ...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신 30:15-16).

29) 강사문, “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31-32.

30) 창 29:6; 43:28; 왕하 4:26; 5:19, 21; 9:11, 22 등을 보라.

어로 쓰인 것이다.<sup>31)</sup> 이런 점에서 우리말의 안녕(安寧), 라틴어의 *salus*, 독일어의 *Heil*도 히브리어 샬롬이 가리키듯 순수한 상태의 평화, 또는 축복의 의미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만나고 헤어질 때 주고받는 인사는 거의 대부분 안녕과 무탈, 안전과 평화, 또는 행복과 번영 등을 기원하는 ‘복’의 핵심에 맞닿아있다.

샬롬의 어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완전하다, 안전하다, 완수하다’ 등을 의미하는 *whole*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불하다, (빚을) 갚다’는 뜻의 *pay*와 관련된 측면이다.<sup>32)</sup> 두 경우 모두 히브리어 동사 *שלם*(샬렘)의 피엘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에서 온전, 번영, 평화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후자에서 배상, 보응, 지불 등으로 확대되었다(신 32:41; 룻 2:12; 삼상 24:19). 특히 샬롬이 ‘지불하다, 빚을 갚다’와 관련된 부분은 신학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 경우 계약법전과 예언서의 용례에서 확인하듯 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범죄의 결과로써 뒤따르는 ‘처벌’ 등 심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출 22:2-6; 사 59:18; 렘 51:56; 겔 33:15)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행악대로 갚기도 하시지만(삼하 3:39), 동시에 선행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도 한다(잠 19:17; 삼상 24:19). 다시 샬롬으로 돌아오면 평화와 번영은 마치 제품의 가격을 ‘변제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가 되듯 수고에 따른 결실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샬롬의 뿌리 말 ‘갚다, 지불하다’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보상 이론은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의 노래’에서 또 다른 측면인 대속적인 고난으로 발전되어 간다(사 53:5). 요약하면 샬롬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두 개의 사뭇 다른 궤적을 그리는데 대가(실렘)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안전한 평화와 번영(샬롬)에 이른다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샬롬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지나치게 이념적인 개념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sup>33)</sup> 그러나 베스터만은 구약성서의 샬롬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면서 개인, 가정, 공동체 등의 온전성(*wholeness*)을 강조한다.<sup>34)</sup> 이스라엘은 자신의 온전성을 예배를 통하여 추구하였다. 따라서

31) C. 베스터만, 『聖書와 祝福』, 15-16, 94-99.

32) Claus Westermann, “Peace (Shalom) in the Old Testament”, Perry B. Yoder, Willard M. Swartley, eds., *The Meaning of Peace: Biblical Studi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6-48.

33) 임태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생명”, 『신학논단』 43 (2006), 109-130; 손세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샬롬”, 한국평화학회 국제 학술 세미나 (2003), 801-809; H. C. White, *Shalom in the Old Testamen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United Church Board for Homeland Ministries (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73).

우리의 논의는 시편과 제의 중심의 샬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샬롬과 제의를 연관지어 설명하려면 모빙켈(Sigmund Mowinckel)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빙켈의 시편 연구는 제의 의식에서 일반적인 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예배는 사제가 기원하는 복의 선언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예배와 의식을 통하여 개인이나 공동체의 복은 성취되고 복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그것을 확장해간다. ... 복은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건강, 자손의 번성과 가족의 번식이다. ... 이스라엘에서 복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야웨의 이름뿐이다.<sup>35)</sup>

예배는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였고 여기에 축복이 빠질 수 없었으며, 이 때 축복은 제의의식을 통하여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베스트터만은 복(bless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샬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샬롬은 지금까지 밝힌 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평안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편 128편의 행복, 복, 토브 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의미상의 연관성이 성립되기에 샬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위협과 위험에서 어떻게 안전이 가능하며, 이해(利害)가 다른 이웃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평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행복과 복과 번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곧 샬롬을 통하여 그리고 샬롬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37)</sup> 시편에서 샬롬은 개인과 공동체가 염원하는 행복과 복이며 또한 번영과 평화이기 때문에 시인들의 노래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 29:11)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시 55:18)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시 72:7)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 128:6)

34) C. Westermann, "Peace (Shalom) in the Old Testament", 19-20.

35)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4), 47-48.

36) C. 베스트터만, 『聖書와 祝福』, 53.

37) Ibid., 45.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토브)을 구하리로다(시  
 122:6-9)<sup>38)</sup>

이 글의 논의에 맞춰 시편에 언급된 살롬을 여러 곳 인용하였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경우를 분석하면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편에서는 살롬이 대부분 평강과 평안으로 번역되었으나 구약성서 전체로 보면 생명, 안녕, 번성 등을 포함하여 복을 대표하는 말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살롬의 포괄적인 의미와 활용을 두고 구문론에서 포의적, 또는 포의 관계(hyponymy)라고 부른다.<sup>39)</sup> 지금까지 우리는 아슈레이/행복, 바라크/복, 토브/선 등의 사전적 의미와 활용을 구약성서 중심으로 토의하였다. 그 세 낱말들의 자리를 살롬으로 바꾸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살롬을 세 낱말로 바꿔 쓴다면 문장이 어색하거나 본래의 문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듯 ‘포의 관계’란 어떤 문맥에서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와 달리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롬이 행복, 복, 선 등과 통용되는 낱말이지만 동시에 이 동류항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살롬의 포의적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 5. ‘행복’과 ‘복’의 이중주: 시편 128편의 역동적 신학

우리는 4장에서 시편 128편의 주요 네 단어의 뜻과 용법을 밝히고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아슈레이/행복, 바라크/복, 토브/번영, 살롬/평강 등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역동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이 시편은 행복과 복을 이중주로 연주하여 이스라엘의 살롬에 이르는 길을 노래하고 있다.

### 5.1. 교사의 ‘교훈’에서 사제의 ‘축도’로

시편 128편에서 1-3절은 일견 지혜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집의 내용처럼 들

38) 인용문은 『개역개정』을 따른 것으로 살롬을 평안, 평강 등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방점으로 히브리어 살롬(שָׁלוֹם)을 표기한 것이다.

39) Moisés Silva, 『성경어휘와 그 의미』, 김정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99;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린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3장의 구조 분석에서 드러난 ‘행복’의 요건을 부족의 장로나 지혜 교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잠언을 비롯한 지혜문학에서 종종 언급되듯 부족의 교훈(clan wisdom)을 포함한 삶의 지혜와 원칙, 그리고 도덕적인 훈계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삶의 교훈 중에서도 정직한 수고(잠 10:16; 14:23), 가정의 화목과 번영은 흔히 언급된다(시 127:3-4; 잠 11:28; 19:13-14; 25:24). “행복하여라, 야웨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이여.” 이 구절은 마치 잠언의 한 구절과 유사하다.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 1:7; 9:10). 지혜자의 교훈은 더 이어진다. 네가 수고한대로 먹으니 너는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다. 탈무드는 손의 수고를 하나님 경외보다 더 칭송한다.<sup>40)</sup> 손의 수고가 3절에서는 시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

시편 128편의 후반부는 지혜학교 모드의 교훈이 사제가 베푸는 축복기도로 바뀐다. 얼핏 듣기에도 아론의 축도(priestly benediction)와 비슷하다. 예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사제는 회중을 향하여 복을 빈다. 따라서 4-6절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의 해설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리브리흐(Leon J. Liebreich)에 따르면 시편 128편을 비롯한 성전시 12편은 아론의 축도에 나오는 주요 네 단어, ‘복주다’, ‘지키다’, ‘은혜를 베푸다’, 그리고 ‘평강’ 등을 풀이하는 시편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시인은 가정의 행복을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하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려한 연주”로 복을 기원한다.<sup>42)</sup>

시편 128편의 1-3절이 일종의 가훈이라면 4-6절은 제사장의 축복선언과도 같다. 전자가 따뜻한 가정의 식탁이라면 후자는 엄숙한 성전의 예배 공간이다. 삶의 지혜(1-3절)는 일한대로 거둔다는 전통적인 교훈을 반영하고, 예배 행위(4-6절)는 시온에서 만난 야웨의 복을 기원하며 이스라엘의 평강에서 마감된다. 지혜는 삶에서 조상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확인한 생활의 원칙들이다. 예배는 자신의 약점과 장점, 부끄러움과 자랑, 야망과 포부를 기꺼이 내려놓고 절대자 앞에 겸허하게 서는 것이다. 시인은 가정과 일터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제의를 통하여 공동체의 평강으로 이어질 것을 소원한다. 지혜학

40) A. C. Feuer, *Tehillim: A New Translation with a Commentary Anthologized from Talmudic, Midrashic, and Rabbinic Sources* (New York: Mesorah, 1985), 1551.

41) Leon J. Liebreich, “The Songs of Ascents and the Priestly Bless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955), 33-36; 피시베인은 아론의 기도가 성전시와 말라기 1:6-2:9에 재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M. Fishbane, “The Priestly Blessing and its Aggadic Reuse”, Robert P. Gordon, ed., *The Place is Too Small for Us: The Israelite Prophets in Recent Scholarship*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223-229.

42)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833.

교의 교육이 예배와 사제의 축복기도와 만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 5.2. 개인에서 공동체로

시편 128편은 시인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전체 이스라엘로 끝난다. 즉 개인(야웨를 경외하는 이)에서 공동체(평강이 이스라엘에 있기를)로 확산되는 구조다. 이와 같이 경건한 개인의 행복과 복이 전체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갈무리 되는 결과를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시인이 노래한 행복, 복, 번영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에 한정되거나 더 분산시킨다 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기 힘든 개념이다. 하지만 이 시편의 행복과 복은 ‘번영’을 통하여 공동체로 확장하고 마침내 ‘샬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완전성에 도달한다. 특히 개인, 가정(아내, 자녀),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샬롬의 길은 점차 넓혀지는 공간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맛보게 한다. 김정우는 시편 128편을 다음과 같이 세 단락으로 나뉜다. “야웨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1-2절), “야웨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3-4절), 그리고 “야웨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행복”(5-6절).<sup>43)</sup>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시편을 두 단락으로 나누는 데 비하여 김정우의 세 단락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세 문단에는 이 논문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가정)의 행복이 가정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로 확산되는 경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이 시편의 역동은 시인의 노래로만 머물지 않고 성전시(시 120-134) 열다섯 편의 구체적인 활용을 통하여 확인된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여인의 딸’에서 시작하여 성전 계단을 오르며 성전시를 낭송한다. 성전시는 시온에 당도하여(시 120-122), 기도하고(123-126), 복을 받고(127-129), 결단하며(130-131), 디아스포라로 떠나는(132-135) 일련의 동선을 그린다.<sup>44)</sup> 이렇듯 순례자들이 열다섯 편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울림과 감동이 한층 상승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대되는 시편 128편의 역동적인 구조는 축제에서 함께 부르는 성전시의 낭송과 맞물려 몽클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인의 행복과 복이 증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시편 128편의 역동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정에서 이스라엘로,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시편 128편에서 성전시(120-134)로, 행복에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구조를 형성한다.

43) 김정우, 『시편 주석 III 90-150』 (서울: 총신대출판부, 2010), 576-582.

44)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온 산과 시내 산”, 제8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38.

### 5.3.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무엇보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사(rhetoric)는 이미 구조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두 단원에 연거푸 등장하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전개되는 시적 전환이다. 시편 23편에서도 거의 흡사한 수사법을 찾아볼 수 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야웨를 3인칭으로 소개한다. “야웨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He) 나를 푸른 초장으로 ... 그가(He)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1-3절). 그런데 위험에 처하는 순간 “당신(You)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불현듯 야웨를 2인칭으로 부른다(4절 일부).<sup>45)</sup> 두 시편에 나타난 인칭변화에 관한 연구는 더 면밀하게 진전시켜야 하지만 우선 평면적으로 볼 때도 형식의 변화는 뚜렷하다. 다만 한글번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차분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3인칭	2인칭
아슈레이	야웨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1)	네 손이, 네가, 네 아내, 네 자녀(2-3)
바라크	야웨를 경외하는 자(4)	네게, 네가, 네 자손(5-6)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3인칭이다. 대체로 3인칭 묘사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객관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3인칭은 독백의 대상이고 2인칭은 대화의 상대를 가리킨다. 3인칭 표현은 시인의 경험과 고백으로 볼 수 없고 2인칭이야말로 자신의 노래이며 확신이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지만 시편 128편은 청중을 3인칭으로 부른다. 2인칭의 특징은 아무리 멀리 있거나 상관없는 대상이라도 ‘너’로 호칭하는 순간 그 거리감은 극복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하듯 시편 128편에서 아슈레이와 바라크의 대상인 일반적인 ‘사람’이 구체적이며 대화의 상대자인 ‘너’가 된다. ‘그’가 ‘너’로 바뀌는 순간 시인과 상대는 지근거리의 ‘나와 너’가 되고 행복과 복은 더 실제적이며 현실적이 된다(2-3, 4-5절).

시인이 ‘행복하여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모든 청중들의 노래가 된다. 즉 행복의 일반론이다. 그러나 시편 128편에서 3인칭이 2인칭으로 바

45) 한글번역성서는 시편 23편의 해당 구절을 거의 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마치 3인칭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흠정역을 비롯한 영어성경은 명백하게 2인칭으로 번역된다. “for thou art with me (KJV)”, “for you are with me (NRSV).”

펼 때 행복과 복은 ‘나와 너’의 막역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함께 나누고 맛볼 수 있게 된다. 즉 행복의 현실론이다. 따라서 시인은 그 대상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어 노래하고 행복/복을 일, 가정, 공동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더구나 시편 128편은 짧은 노래지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환되는 장면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아슈레이/바라크의 목표와 원칙이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로 확산되는 진전을 보여준다.

#### 5.4. ‘행복’과 ‘복’의 이중주

시편 128편은 행복과 복의 미묘한 차이를 토브로 연결하고 전체를 샬롬으로 감싸는 구도를 유지하지만 핵심은 아슈레이와 바라크다. 행복과 복은 얼핏 같은 듯 다른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이중주와 같은 화음을 들려준다. 이 시편의 구조와 신학적 의미를 근거로 행복과 복의 두 가지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방법	영역	목표
행복(אַשְׁרַי)	번영	일, 부부, 자녀	이스라엘 샬롬(שָׁלוֹם)
복(בְּרַךְ)	토브(טוֹב)	자손, 시온, 예루살렘	

행복과 복은 방법과 목표를 공유하지만 그 영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토브로 설명할 수 있는 지속성은 행복과 복을 꾸준히 이스라엘의 샬롬으로 이끌어 가는데, 행복이 가정 중심이라면 복은 예루살렘 중심적이다. 이 때 샬롬이 행복-복-번영과 포의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샬롬은 최종 목표이면서 앞의 행복/복의 방법(토브)과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시편 128편의 첫 문단에서 핵심은 ‘아슈레이’다. 앞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적, 또는 신앙적 차원의 평안과 기쁨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행복을 일상의 삶, 배우자와 자녀, 가족의 영역에서 분리할 수 없다. 시편 128편의 행복이란 삶의 물질 토대인 직업과 자신이 소속한 가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이 영적, 정신적 유희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동적인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맥마혼(Darrin M. McMahon)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며 그 순간순간이 곧 행복으로 가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sup>46)</sup> “내가 곧 길”

(요 14:6)이라는 예수의 선언은 그 분 자신이 과정이며 동시에 목표라는 뜻과 같다. 시인의 행복은 우선 목표의 성취에 맞춰 있지만 예세르의 어근이 가리키듯 그 목표를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꾸준한 자세에서 이미 싹트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는 ‘바라크’가 4, 5절 두 차례 나온다. 수동태 푸알(פּוֹאֵל: 4절)과 강조 능동태 피엘(פִּיֵּל: 5절)의 형식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복은 많은 소유와 재산의 증식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시인은 앞에서 행복의 지나친 영적 의미를 경계하고, 이제는 개인적, 물질적,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은 복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행복과 복이 야웨 경외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행복이 가족 공간의 개념에서 ‘야웨 경외’를 다리 삼아 복을 넘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영역이 확산되다가 샬롬에서 들은 합류한다. 특히 ‘평생토록’, ‘자손의 자녀들’은 가정에 집중된 개인적 차원을 암시하지만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명시함으로써 결국 공동체의 행복/복으로 마감한다.

이렇듯 아슈레이의 신앙적 차원이 이스라엘의 구성원에게, 바라크의 물질적 차원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은 토브에 있다. ‘행복’과 ‘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적인 방법은 곧 토브에 함축된 지속성이며 규칙성이다. 시편 128편에서 토브는 2절에서 ‘너의 행복/아슈레이와 토브’를, 5절에서 시온의 ‘복/바라크와 예루살렘의 토브’로 나란히 평행시키고 있다. 아슈레이는 ‘야웨 경외’를 통한 복으로서 ‘일한 대로 먹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시인은 번영한다(토브). 바라크는 ‘야웨가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며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번영/토브다. 다시 말하면 토브는 아슈레이와 관련해서 가족과 일상을 중심으로 일과적인 반복(현실)을 강조하고, 바라크와 관련해서는 성전의 영원성(신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인에게 토브는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함께 지탱하는 중심축이며 샬롬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제 샬롬은 토브를 통하여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하나로 모은다. 거스텐버거가 6절 후반부, ‘이스라엘의 평화’를 독립적인 단락으로 나눈 이유이기도 하다.<sup>47)</sup> 6절을 살펴보면 3절의 아내와 자식이 자손과, 5절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평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으로 시작한 행복 여정이 이스라엘의 구성원(시인, 가족, 공동체)과 공간(시온, 예루살렘,

46) Darrin M. McMahon,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Grove, 2006), 77.

47) Gertstenberger, *Psalms*, 349.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즉 행복과 복의 원천인 야웨, 그를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될 평강은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목표이며 결국 시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 수혜자가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가 서 있는 공간을 내포하는 시어(詩語)이며 살롬은 행복과 복을 함께 담은 결어(結語)가 되는 것이다.

아슈레이/행복과 바라크/복은 토브를 근거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살롬에서 대단원에 이르고 마침내 완전체(completeness)가 된다. 이렇듯 온전성에 이르는 두 기둥은 야슈레이와 바라크이며 토브가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살롬에 도달하고 마침내 행복과 복의 화려한 이중주가 완성된다.

## 6. 나오는 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다섯 가지 복(福)을 중시해왔다. 즉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다. 구약성서 또한 여러 형태의 복을 빈빈하게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 128편은 행복과 복을 통한 번성과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편은 행복/아슈레이에서 복/바라크로 짧게 이어지는 두 단락의 노래인데 들여다보면 꽤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행복과 복은 공통적으로 토브와 연결되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평강에 도달한다. 제목에서 ‘행복’과 ‘복’을 편의상 구분하였지만 내용상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모빙켈의 설명처럼 두 단어의 어원적인 차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구약성서에서 둘의 의미상 구별이나 차이점을 논의하기 어렵다.<sup>48)</sup>

한편 시편 128편은 특징적인 강약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시는 형식적으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환되고, 공간적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산되며, 내용적으로 지혜가 제의와 결합하여, 결국에 행복과 복이 토브를 매개삼아 살롬으로 귀결되는 역동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 시편의 역동적 전개는 마치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노래하던 경험과 맞물려 극적인 상승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함께 가정의 행복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서양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미사의 축사로 활용되었다.<sup>49)</sup> 특히 행복과 복은 두 바퀴처럼 시편 128편을 이끌어 가고 ‘야웨 경

48)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47.

외’에서 비롯된 가정의 행복과 시온의 복이 토브를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샬롬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부부가 평생 가야할 삶의 방법과 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행복은 시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분산되고, 복은 점차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확산되어 개인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 곧 평강을 맛보기까지 이중주는 계속된다.

<주요어>(Keywords)

시편 128편, 성전시, 행복, 복, 평강.

Psalm 128, Happiness, Blessing, Shalom, Peace.

(투고 일자: 201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11일)

---

49) William Holladay,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 Years* (Minneapolis: Fortress, 1996), 221.

<참고문헌>(References)

- 강사문, “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 『교회와 신학』 23 (1991), 7-37.
- 강소라, “시편 1권의 ‘복 있는’ 구절에 나타난 행복”, 『성서학 학술세미나』 (2009), 1-10.
- 김정우, 『시편 주석 90-150』, 서울: 총신대출판부, 2010.
- 김창주, “‘하늘의 기쁨’ - 시편과 산상수훈의 경우”, 『신학논단』 62 (2010. 10.), 86-90.
- 노희원, “구약의 복과 생명”, 『신학논단』 26 (1999), 7-38.
-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21,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1; Allen, Leslie C.,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21, Waco: Word Books, 1995;
- 베스터만, C., 『聖書와 祝福』, 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Westermann, C.,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 손세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샬롬”, 『한국평화학회 국제 학술 세미나』 (2003), 801-809.
- 실바, M., 『성경어휘와 그 의미』, 김정우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0; Silva, Moisés,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온 산과 시내 산”, 『제8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9), 30-40.
- 임태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생명”, 『신학논단』 43 (2006), 109-130.
-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2006.
- 차학순, “시 128편의 묵상: 야웨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 있기를”,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2:8 (1996. 7.), 52-66.
- 폴 리코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Riceour, Paul, *The Symbolism of Evil*, New York: Beacon Press, 1967.
- 현요한, “복의 신학”, 『장신논단』 (2002. 12.), 307-331.
- Silva, M., 『성경어휘와 그 의미』, 김정우, 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 Barney, R., “Notes on Plato on the Kalon and the Good”, *Classical Philology* 105:4 (2010), 363-377.
- Brennan, J., “The Psalms and the Beatitudes”, *The Furrow* (1963), 561-572.

- Chavel, C. B. *Ramban (Nachmanides): Commentary on the Torah Genesis*, New York: Shilo, 1971.
- Even-Shoshan, Abraham,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Thesaurus of the Language of the Bible Hebrew and Aramaic Roots, Words, Proper Names, Phrases and Synonyms*, Ada: Baker, 1977.
- Feuer, A. C. *Tehillim: A New Translation with a Commentary Anthologized from Talmudic, Midrashic, and Rabbinic Sources*, New York: Mesorah, 1985.
- Fishbane, M., “The Priestly Blessing and its Aggadic Reuse”, Robert P. Gordon, ed., *The Place is Too Small for Us: The Israelite Prophets in Recent Scholarship*,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223-29.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 Eerdmans, 2001.
- Hossfel, F-L and Zenger, E., *Psalmen 101-150*, Freiburg; Basel: Herder, 2008.
- Howard Jr, D. M.,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of-the-Field Survey”, *Word and World* 9 (1989), 274-285.
- Human, D., “From Exile to Zion - Ethical Perspectives from the Twin Psalms 127 and 128”, *Old Testament Essays* 22:1 (2009), 63-87.
- Janzen, W., “‘AŠRĒ in the Old Testament”, *Harvard Theological Review* 58 (1965), 215-226.
-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2006.
- Kraus, H. J., *Psalms 60-150*, Minneapolis: Fortress, 1989.
- LaCocque, André,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33-52.
- Liebreich, Leon J., “The Songs of Ascents and the Priestly Bless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955), 33-36.
- McMahon, Darrin M.,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Grove, 2006.
- Mowinckel, Sigmund,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4.
- Nida, E. 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82.
- Pedersen, J., *Israel, Its Life and Culture I-II*, London: Geoffrey Cumberleges, 1926.
- Reich, Ronny and Eli Shukron, “The Date of the Siloam Tunnel Reconsidered”, *Tel Aviv* 38:2 (2011), 147-157.
- Sarna, Nahum M., *Songs of the Heart: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New York: Schocken, 1993.

Scharbert, Josef, “ברך, brk”,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II*, 279-308.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Westermann, C., “Peace (Shalom) in the Old Testament”, Perry B. Yoder, Willard M. Swartley, eds., *The Meaning of Peace: Biblical Studi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6-48.

White, H. C., *Shalom in the Old Testamen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United Church Board for Homeland Ministries, 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73.

<Abstract>

## A Study o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Psalm 128

Chang Joo Kim  
(Hanshin University)

Psalm 128 celebrates happiness(*ashrei*), blessing(*berakhah*), and peace(*shalom*). Psalm 128 consists of two paragraphs that start out with happiness and are led into blessing. Happiness and blessing are connected with goodness(*tov*) and finally arrive at Israel's shalom.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happiness' and 'blessing' in content. As Mowinckel has said, origins of words are different, however, it is not easy to discuss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Old Testament.

The main theme examined in this work is that Psalm 128 sings in an effectively dynamic way. The poem changes to second person from third person; spatially it spreads from individual to community; and in terms of content, it moves from sapiential salutation to priestly benediction. Eventually happiness and blessing come to shalom through *tov*. This dynamic development of Psalm 128 looks like a literary device that causes a dramatic climax while a pilgrim walks up the stairs of the Jerusalem Temple.

The conclusion I came to in this study is that Psalms 127 and 128 are about praying for a family's happiness and blessing. Thus, it is usually read at wedding ceremonies in western churches. Happiness and blessing are the two wheels that guide Psalm 128. Through *tov*, the happiness of a family and the blessing of Zion that start from 'the fear of Yahweh' eventually arrive at the shalom of Zion, Jerusalem, and Israel. This shows the way a married couple should follow throughout their lifetime. Through this process, happiness is spread to the poet, his wife and his children while blessing is gradually dispersed to Zion, Jerusalem, and Israel. This creates a beautiful harmony like a duet, and ultimately shalom for the poet and his communal society.